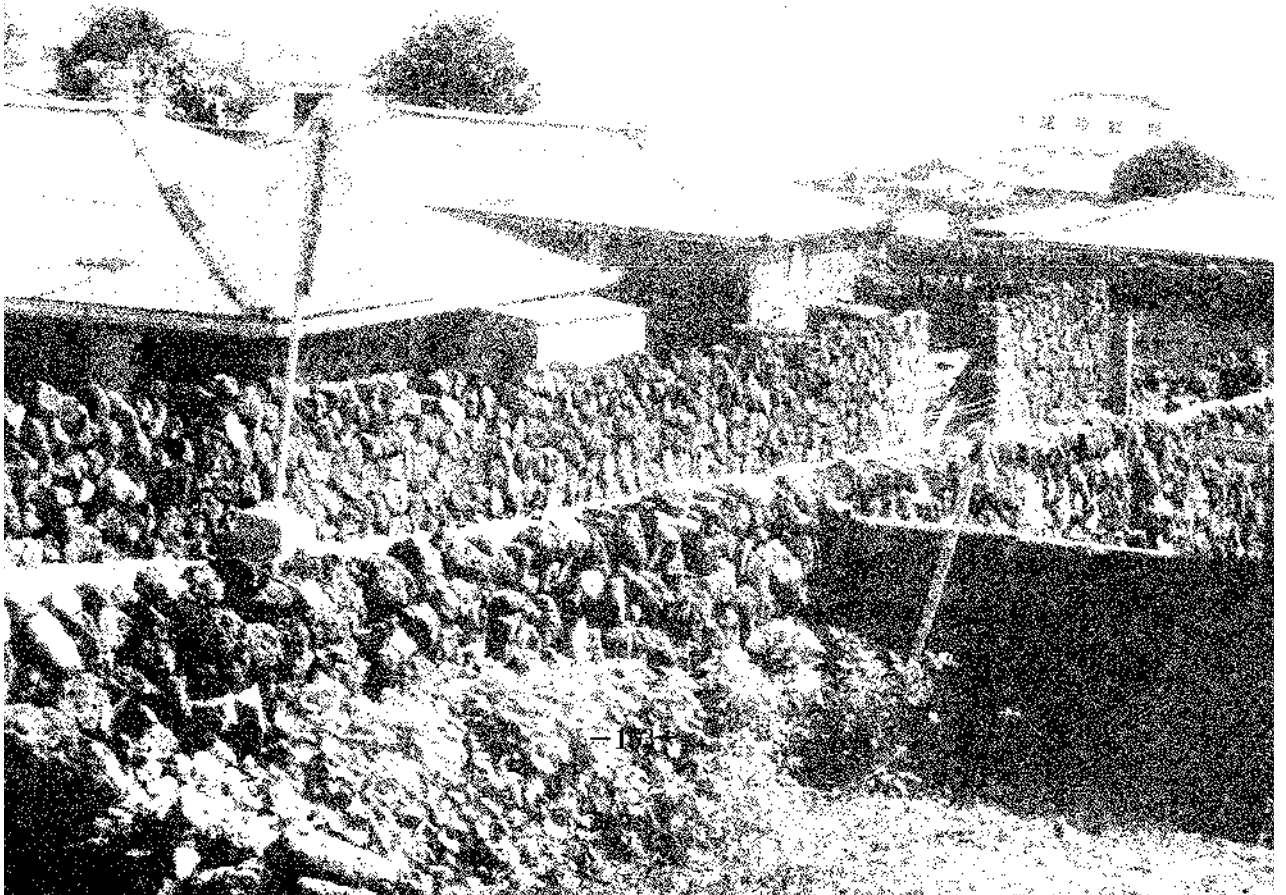


제 3 편 社 會 環 境



제 1 장 社會構造와 姓氏構成

제 1 절 사회구조

1. 토착성과 전통성

우도 주민의 대부분(약 90%)은 우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본토박이들이다. 그리고 약 50%의 사람들은 고조부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다. 본인 당대에 入島하여 사는 사람들은 10% 남짓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약 60%의 사람들은 10년 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출생지가 우도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출생하여 그 부모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과 본인 당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그 출생지를 보면, 제주 본섬의 농촌지역(군부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약 50%), 육지부인 경우 호남지역이 약 20%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충청·영남지역이 각각 5%정도로 비슷하며 외국 출생인 경우도 있으나 강원과 이북 출신은 드물다.

통혼권에 있어서 보면, 같은 마을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반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을 내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우도 내의 다른 마을 간에 통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30%가 된다. 말하자면 우도 주민의 80% 이상이 우도 내에서 결혼하였고 이는 우도라는 지역 범위가 우도민의 유력한 통혼 지역 범위가 되어 왔다는 것이 된다. 우도 내 거주자 중 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 당시 결혼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제주도 본 섬의 경우 같은 마을 내의 결혼사례는 30% 정도이고 제주도의 다른 마을과의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 사례는 60% 정도가 된다. 육지 지방의 경우, 마을 내 결혼이 약 14%에 불과하고 같은 도내의 다른 마을 사이의 결혼은 약 30%, 다른 도와 통혼한 경우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우도 주민 중 5%의 사람들은 육지 지방과 통혼하였다.

우도 주민들이 우도 내에서 통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처가(혹은 친정)가 같은 마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우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 그리하여 70%를 초과하는 우도민들은 우도 내에 처가(혹은 친정)를 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도 내에 외가, 처가, 친정, 친가를 두고 있어서 이는 우도 내의 “경·조사 때는 주민 80%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연유가 되는 것이고 “결혼 잔치가 5일 정도 계속되며 돼지도 열 마리나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용 부분은 현지의 어떤 지역 인사의 말)

우도 주민의 약 25%를 넘는 사람들이 전통적 무속 신앙으로서 무당 곳을 하거나 무속적인 제를 지내고 있으며 당에서 비념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데 그들 중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소재의 당을 이용하고 있다. 포제 등 전통적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율은 약 15% 정도로 그리 높지 못하며 동족 모임 참여율은 60%를 넘고 있다.

자주 만나는 친구는 대부분 같은 마을(약 70%)을 포함 우도 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는 대체로 가족·친척 등 혈연이다. 그리고 주민 중 우도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그 이유로 드는 것을 보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기 때문’이라거나 ‘나와 내 가족이 살아온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혈연적 의미가 현재의 이곳에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도민은 토착적이며 전통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우도민의 특징적인 면모는 도서적, 봉쇄적인 한 면모이기도 하다.

2. 생활 공간의 범위 (공동생활권)

마을 단위 공간을 벗어나 생활하는 공간 범위를 살펴보면 과반수의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도 내의 다른 마을들을 왕래하였다. 그 왕래 횟수에서 보면 매일 왕래하는 사람들이 10% 정도이고 대부분(약 70%)의 사람들은 월 1회에서 9회정도 왕래하고 있다. 우도를 벗어나지 않고 우도라는 지역 범위를 생활 범위로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7%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노인층의 경우 극히 적은 수이기는 하나 마을 밖 출입을 안 했던 즉 마을지역 범위가 그 생활 범위인 사람들도 있다.

우도를 벗어나 다른 읍·면지역에 왕래한 사람들은 31%이고 이들 중 10%를 상회하는 사람들만이 '하루 건너 한번' 이상 왕래하였고, 대개는 그 왕래 횟수가 '월 9회'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서귀포시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6% 정도) 그 왕래 횟수도 월 1~3회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에 왕래한 사람들은 우도 밖의 어느 지역에 왕래한 경우보다 많아서 그 비중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약 60%)은 그 왕래 횟수가 월 1~3회 정도이다. 제주도 밖 육지 지방으로 왕래한 사람들은 약 14%, 이들 중 거의가 그 왕래 횟수 월 1회 미만이나 월 10~19회 정도 육지 지방을 출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벗어나 다른 마을 혹은 다른 지방에 출입하는가?

우도 내의 다른 마을에는 생활필수품 및 생활비품의 구입이나 행정 및 금융기관 이용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제주시와 우도 외의 다른 읍·면 지역에는 병·약방 이용, 가족 및 친지 방문의 경우가 많은데, 제주시에는 특히 가족 및 친지 방문 등 신변 사항 때문에 왕래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와 육지 지방에의 왕래는 거의가 가족·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마을 밖 왕래 목적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

- 생활필수품이나 생활비품 구입을 위해서는 대체로 우도내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고 있으나 때로는 제주시 혹은 우도 외의 다른 읍·면을 왕래하고 있다.

- 책·잡지·학용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이나 우도 밖의 다른 읍·면지역을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다.

○ 영농·축·어로용품의 구입 및 그 생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대체로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고 있으나 우도 외의 다른 읍·면 때로는 제주시를 내왕하고 있고 극히 적은 경우이긴 하나 도 외의 육지 지방에 왕래할 때도 있다.

○ 병원이나 의약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개 제주시를 왕래하고 있으나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을 이용할 때도 적지않다. 간혹 도 외의 육지지방에 왕래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귀포시를 왕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개 우도 내 다른 마을을 왕래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제주시를 왕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극히 드물기는 하나 우도의 다른 읍·면을 왕래하기도 한다.

○ 가족 혹은 친지 방문 및 개인적 신변 정리를 위해서 출입이 가장 잦은 지역은 제주시인 것으로 보이며, 우도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우도 외 읍·면이나 도외 육지지방을 왕래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귀포시 왕래는 적다.

○ 한편 여가 활동은 대개 우도내 특히 자신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도외의 다른 지역을 쫓는다면 제주시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외의 다른 지역은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여가 활동을 위해 찾아 다니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우도민에게 있어서 생활상에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지역은 물론 우도이지만 우도를 벗어나서 보면 제주시가 가장 그러한 지역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우도 외의 다른 읍·면 지역이며 서귀포시는 비교적 중요치 않은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보다는 오히려 육지 지방이 더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도민에게 있어서 우도는 시장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 단위로서 대부분(약 80%)의 사람들은 우도 내에서 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으며 우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는 제주시가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 성산포 등 다른 읍·면 소재지도 우도민에게 시장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5일 시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도민의 약 30% 정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우도 외의 읍면 소재지에 개설되는 5일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권에 관련해서 보면 우도는 하나의 단일 교육권이 되고 있다. 우도 아동들은 모두 우도 서광리 중앙동 소재의 같은 초등학교(연평초등학교), 같은 중학교(연평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고등학교는 우도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도 밖으로 그 권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과반수(약 55%)가 제주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30% 정도가 다른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학 진학에 관련하여서 보게 되면 제주도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보다 4 : 3의 비율로 더 많다.

종교권의 경우를 보면 우도민은 대체로(약 70%) 우도내의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우도는 우도민의 하나의 종교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약 30%의 사람들이 우도 밖의 다른 지역 소재의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80%는 성산포 등 다른 읍·면 소재의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약 20%의 사람들은 제주시 소재의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3. 사회조직

1) 우도내의 조직

우도 내에는 35개의 소집단 조직(자발적 결사체)이 있다고 하는데 우도 총 인구 3007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02명이 이들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이제 그 조직의 성격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목조직 : 친목조직은 다른 어떤 성격의 조직보다도 그 명칭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으며 수도 많고 그 구성원 수도 가장 많다. 구체적인 고유 명칭이 붙은 친목계만을 나열하여 보면 우정친목회, 88친목회, 병술친목회, 10형제회, 7형제회, 을미회, 상록친목회, 성지친목회, 신우회, 돈우회, 일심친목회, 경인회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나이를 공통점으로 하는 갑장회, 친구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친우회, 형제회, 출신지를 공통점으로 하는 친목회, 부녀들 사이의 친목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도면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친목조직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마 음 친 목 회	오 봉 리	1980	17
성 지 친 목 회	"	1978	15
신 우 회	"	1983	12
상 록 회	"	1986	20
8 8 친 목 회	"	1988	22
청 슬 회	우 도 면	1987	11
백 송 회	"	1989	8
우 도 동 우 회	"	1986	22

○ 영농·경제 관련 조직 : 어촌계, 잠수회, 영농후계자모임, 어민후계자모임, 작목반, 상인 조직 등이 있다. 어촌계는 그 공식 명칭이 '우도법인어촌계'(정관 1조)로서 1978년 설립(설립위원장 : 김석범)되었으며 도내 유일의 법인 어촌계이다. 목적은 '계원의 생산력 증진,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수행,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정관 2조)이고 지역 범위는 '우도면 일원'이며 사무소 소재지는 서광리이다. 리별 조합원 현황을 보면 천진리 92명, 서광리 79명, 오봉리 180명, 조일리 126명 계 477명이며, 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촌계장 1, 이사 5, 감사 2명이다.

'잠수회'는 우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에 면해 있지 않은 서광리 중앙동을 제외하고 모든 자연부락 단위 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 잠수회의 현황과 영농후계자모임 및 어민후계자모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우도면사무소 제공).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동 천 진 동 잠 수 회	천 진 리	1973	40
서 천 진 동 잠 수 회	천 진 리	1974	50
상 우 북 동 잠 수 회	서 광 리	1973	29
하 우 목 동 잠 수 회	서 광 리	1974	50
주 흥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4	38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전 흥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4	40
삼 양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4	40
상 고 수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5	50
하 고 수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5	60
비 양 동 잠 수 회	조 일 리	1972	80
영 일 동 잠 수 회	조 일 리	1973	56
농 민 후 계 자 협 의 회	서 광 리	1986	12
어 민 후 계 자 협 의 회	오 봉 리	1987	12

○ 건강·취미 관련 조직 : 산호조기회(1987년 설립 회원수 23명), 우도낚시회가 있다.

○ 마을 운영 관련 조직 : 개발위원회가 있다.

○ 기타 특정 부문 조직 : 연령별 성별 특수부문 관련 조직으로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원로회, 우도위생협회 등이 있는데 우도 내의 특정부문 조직들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자료 : 우도면사무소 제공).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우 도 위 생 협 의 회	서 광 리	1987	10

- 청 년 회 -

천 진 리 청 년 회	천 진 리	1973	35
서 광 리 청 년 회	서 광 리	1986	14
오 봉 리 청 년 회	오 봉 리	1986	16
조 일 리 청 년 회	조 일 리	1986	15
우 도 청 년 연 합 회			

- 부 녀 회 -

천 진 리 부 녀 회	천 진 리	1986	25
서 광 리 부 녀 회	서 광 리	1974	25
오 봉 리 부 녀 회	오 봉 리	1986	28
조 일 리 부 녀 회	조 일 리	1974	50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대한우도노인회	서 광 리	1988	35
연평국교어머니회	서 광 리	1984	80
연평중교어머니회	서 광 리	1988	70

위의 표에서 청년회와 부녀회는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우도내 조직에의 가입 상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2개 이하의 조직에 가입하고 있으나 3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앞에 분류한 조직의 성격별로 보면 친목 조직에는 약 50%, 영농·경제 관계 조직에는 6~7%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나, 건강·취미 조직이나 마을운영에 관련한 조직에는 그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다. 따라서 우도 내의 조직활동을 하는 경우 우도민의 관심은 대체로 친목조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도 밖의 조직(활동)

우도민이 우도 밖에서 관여하는 조직(활동)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군 홍보위원회, 갯생보호협회, 군의회, 지체장애자 복지회, 동창회, 신한국당 등 정당, 교회 관련 단체, 새마을협의회, 승공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연합청년회, 치과위생사모임 등 15,6개종의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10%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조직 중 성격상 행정 조직 혹은 정부 사책과 관련된 조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문직업 관련 조직이며 친교집단, 봉사단체 등도 있다. 그 조직(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보면 서귀 구좌친목회, 연합청년회 등이 있고, 군 단위 조직으로는 군 의회, 지체장애자복지회, 군 홍보위원회, 동창회 등이, 도 단위 조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하이진(치과위생사모임), 새마을협의회, 갯생보호협회, 승공연합회, 교회 단체 등이 있으며, 어민후계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신한국당 등 전국 단위 조직도 있다.

4. 직업구조와 계층구조

1) 직업구조

우도의 직업구조를 보면 농·어업이 대부분(약 75%)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의 직업으로는 상업, 공무원, 회사원, 종교인, 목수, 해녀(여자의 경우)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상업이 구성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은 9% 정도이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 구조를 살펴보면 농·어업 비중이 약 78%를 초과하여 1차 산업 중심의 직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가 27%정도인데 이 경우 겸업으로는 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 축산업, 건축업 등이 있다. 순 어업의 비중은 약 6.7%, 다음이 상업(약 5%), 사부직과 노무직이 약 4%내외이다. 사무직으로는 공무원이 제일 많고 그 외에 목사 등 종교인, 회사원 등이 있고, 노무직으로는 우편배달원, 미화원, 목수 등이 있다.

우도의 경우 특히 여성 직업으로 해녀가 많은데 약 2/3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녀 가구이다. 해녀 소득도 해녀 가구의 1/2정도가 그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가구 소득의 90% 이상을 해녀 소득이 차지하는 가구도 해녀 가구의 약 5%가 된다.

마을별로 직업구조를 보면 조일리가 가장 농업 우위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봉리는 덜 농업적인 대신에 어업적이면서 동시에 비농업적인 직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비농업적인 모습은 서광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마을별로 어떤 비농업적(직)업소가 있는지를 보면 잡화상은 4개리 모두에 있어서 조일리에 5, 천진리에 4, 오봉리에 7, 서광리에 6개가 있으며, 식당은 조일리에는 없고 천진리와 오봉리에 각 1개 씩이 있는데 대해서 서광리에는 4개가 있고, 미곡상은 오봉리에 2, 서광리에 1개, 민박 가옥은 천진리에 3개, 고물상은 서광리에 2개, 식육점은 오봉리에 1개가 있다. 기타 이발소, 빵집, 다방, 당구장, 노래방 등은 모두 서광리에 1개소 씩 있으며 미장원도 서광리에 3개가 있다. 숙박 시설로서 명신여관(고명찬)과 중앙여인숙(김광민)이 서광리에 있고, 노선 버스 및 차량 대절

운행을 하는 우도교통(김용훈)이 또한 서광리에 소재하고 있다. 해상관광을 위해 소형 선박을 운항하기도 하는데 서광리의 덕일호, 천진리의 길조호와 대진호가 그러하다.

농업인 경우 그 농업상의 계층을 보면 자작이 65%, 자작 겸 소작이 17%, 자작 겸 지주(경작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9%, 소작 4%이고 농업노동은 2%, 지주는 1%정도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주적 성격의 계층은 약 10%, 소작적 성격의 계층은 23%이며 순수 자작 계층은 65%이나 자작적 성격의 계층(순수 자작층 및 자작을 겸하는 모든 계층)은 90%를 상회한다.

약 18%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어서 순수 영농층은 약 82%라고 볼 수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경험 없이 농업만 지어온 사람들만의 비중은 약 68%가 된다.

부업을 포함하여 농·어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약 8% 정도 되는데 그 중 행정기관 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직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약 67%)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점 등 자영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 농·어업 이외의 직업 활동은 대체로(약 75%) 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제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 같다.

이제 우도면사무소가 제공하는 우도의 자영업 현황과 직장(주요기관)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자영업 현황(마을별)

* 표에서 숫자는 가구/인구임.

	상 점	식 당	고물상	당구장	숙박업	계
천진리	5/20	1/3				6/23
서광리	20/45	4/10	2/7	1/1	2/5	29/68
오봉리	8/15	1/3				9/18
조일리	5/8					5/8
계	38/88	6/16	2/7	1/1	2/5	49/117

< 표 2 > 주요 기관 현황

* 표에서 숫자는 인구임.

	5급이상	5급이하	계	본적:우도	비 고
우도면사무소	1	16	17	5	소재지:서광리
연평중학교	2	15	17	2	"
연평초등학교	2	13	15	2	"
우도지서		8	8	1	소재지:천진리
우도우체국		3	3	1	소재지:서광리
한전우도주재소		2	2	1	"
한국통신우도분국	2	2		"	
농협우도지소		6	6	4	"
우도법인어촌계		9	9	9	우도내자생조직 소재지:서광리
우도동대	3		3		소재지:천진리
전경기지대			약30명		

2) 소득 및 학력 계층

연 소득 총액을 300만원 단위로 급간을 정하고 그 계층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00만원 이하 29%, 301만원~600만원 25%, 601만원~900만원 16%

901만원~1,200만원 12%, 1,201만원 이상 8%.

이 현황에서 보면 우도의 소득 계층구조는 대체로 피라밋형의 불평등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약 7%이고 소득액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소득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가구:78%, 어업소득 가구:63%, 농·어업 외의 소득 가구:25%, 직업 이외의 기타 소득(외부로부터의 송금 등 잡수입) 가구:15%이다.

농업소득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대부분(60%)이고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7% 정도이고, 어업소득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대부분(64%)이나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대체로 보아

농업 소득보다 어업 소득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업에 해녀 직업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해녀 소득이 우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농·어업 이외의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가 36%로서 농·어업 소득의 경우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낮은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21% 정도로써 농·어업 소득의 경우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 직업 소득 이외의 잡수입이 있는 가구는 15% 정도인데 그 액수는 90% 이상이 500만원 이하로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력상의 계층을 보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2% 정도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무학의 각 계층들은 각각 20~25%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학력상의 불평등 현상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토지 소유 및 영농 규모의 구조

전체 토지 소유 규모는 1,000평 미만 10%, 1,000~1,900평 29%, 2,000~2,900평 23%, 3,000~3,900평 18%, 4,000평 이상 20% 정도이다. 그러니까 대부분(62%)의 가구가 3,000평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우도라는 섬의 지리, 지형적 이유이겠지만 대토지 소유자는 없다.

경작지만을 놓고 보면 1,000평 미만 11%, 1,000~1,900평 33%, 2,000~2,900평 22%, 3,000~3,900평 16%, 4,000평 이상 18%정도이다. 이와 같이 경작지 소유규모는 3,000평 미만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의 물적 기반은 섬이라는 지형 지리적 배경과 더불어 우도의 영농 성격을 제약함으로써 그 직업 구조상 어업적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이며 소농적 영농 구조를 형성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농 규모를 보면 1,000평 미만 16%, 1,000~1,900평 22%, 2,000~2,900평 28%, 3,000~3,900평 18%, 4,000평 이상 16% 등으로서 대체로 보아 2,000평 대의 규모를 정점으로 하여 2,000평 미만의 적은 평수에 비중이 더 실린 정상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그림 참조). 최대 영농 규모는 7,000평이며, 약 50%의 영농 가구는 1,000~2,900평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다.

영농 규모 현황을 자작과 소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작 영농 가구는 약 65%이고 소작 영농 가구는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소작 별 영농 규모는 다음 <표 3>과 같고 자작 최대 영농 규모 7,000평, 최소 500평이며 소작 영농 규모의 경우는 최대 3,000평, 최소 500평이다.

<표 3> 자·소작 별 영농 규모 현황

	1,000평 미만	1,000~1,900평	2,000~2,900평	3,000~3,900평	4,000평 이상
자 작	20%	31%	21%	16%	11%
소 작	28%	42%	20%	11%	

자·소작 모두 과반수가 2,000평 미만의 영농을 하고 있으며 1000~1900평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작의 영농규모는 소작 영농보다 크다. 그리고 13%의 가구는 자신의 경작지 일부 혹은 전부를 빌려주고 있어서 지주적 성격의 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빌려준 경작지 규모는 대부분(70% 이상)이 2,000평 미만의 소규모이다. 경작지를 그냥 놓리는 경우도 약간 있다(약 6%).

4) 계층(직업) 이동

우도민의 주업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면 부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59%가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어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13%, 기타 비농·어업적 직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15% 정도이다. 그러니까 부친의 직업이 농업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어업 보다는 그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친의 직업의 어업의 경우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가 적어서 대부분(57%) 농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일부(약 29%)는 비농·어업적 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부친의 직업이 농·어업 이외의 기타 직업인 경우는 농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약 62%)이고 어업으로 이동했거나 기타 직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친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그 직업을 대체로 계승하였고 어업인 경우는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어업 이외의 기타 직업인 경우 어업의 경우보다 더 비농·어업적인 기타 직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5. 계층 의식과 공속 감정

생활 수준을 상·중상·중하·하·극빈의 5개 층으로 나누고 제주 농촌 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우도민이 생각하는 소속 계층을 보면 상층 약 1%, 중상층 약 20%, 중하층 약 27%, 하층 약 40%, 극빈 약 11%이다. 하층(소속)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그 다음이 중상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상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극빈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다.

우도민의 우도 공속 감정을 보면 대부분(약 82%)의 사람들은 우도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지(약 5%)보다는 제주도내의 어떤 곳(13%)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도내 이사 희망자들의 대부분(약 65%)는 제주시를 선호하고 있어서 向都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육지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向都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것은 영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가 도시로, 호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가 농촌으로 그 이사 희망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를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자녀 교육이라는 이유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거나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 부족이라는 이유가 비교적 많으며 가족간의 합류 때문이라는 이유도 적지 않다.

마을 소속 감정은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우도민의 약 87%는 '평소 생활하면서 이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도민이 '우리 마을'

이라는 지역 단위는 우도 전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자연부락을 '우리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현재의 행정리를 '우리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우도민의 의식 구조에서 보면 우도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내부에서 결속력 있는 지역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현지 조사 자료 ① : 우도의 전체 행정 4개 리(천진, 서광, 조일, 오봉) 별로 가구 수 기준 1/4에 해당하는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표집된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하였다. 마을 별 표본 수는 천진리 35, 서광리 32, 조일리 39, 오봉리 52 가구(총 표본 수 158가구)이며 면접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일주일 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학생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2. 현지 조사자료 ② : 각 행정리의 이장과의 심층 면접을 거쳐 리별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3. 각종 행정 자료와 서류 : 우도면사무소로부터 제공되었다.

제 2 절 성씨 구성

1992년 2월 10일 현재 전산 출력된 주민등록표에 의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9가구 중 본관과 성씨 모두 미상인 가구가 61가구(본적이 우도인 경우 27, 우도가 아닌 경우 34)이고 성씨는 알 수 있으나 본관이 미상인 경우가 33가구로서 본관과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만은 535가구가 된다. 본관과 성씨 모두 미상인 가구는 그 남편의 성씨를 알 수 없는 여자 가구주인 경우이고 본관이 미상인 가구는 우도가 본적이 아니어서 호적부를 대조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가구는 호적부 대조에 의하여 본관과 성씨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535가구이지만, 먼저 본관을 확인키 어려운 성씨에 관하여 일별하기로 한다. 본관 확인이 안 되는 성씨의 가구는 본적이 우도가 아니고

타지인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는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33가구이고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34가구인데 부계 가족제도에서 성씨구성은 여자의 경우 그 남편의 성씨를 고려해야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남자 가구주인 33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씨(본관 불고려) 구성을 보면, 강씨 4가구(오봉리, 조일리 각 1, 서광리 2), 고씨 3가구(조일리 2, 서광리 1), 김씨 10가구(오봉리 4, 서광리 5, 천진리 1), 남씨(천진리), 박씨(천진리), 오씨(서광리), 육씨(천진리), 윤씨(서광리), 주씨(오봉리), 차씨(서광리), 채씨(천진리) 각 1가구, 이씨 3가구(조일리 1, 서광리 2), 정씨 2가구(조일리, 서광리 각 1), 홍씨 2가구(서광리)가 된다. 이들 본적이 우도가 아닌 성씨들을 리 별로 보면 서광리에 17가구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오봉리에 6가구, 조일리와 천진리에 각각 5가구 씩 살고 있다. 이들 성씨의 리 별 분포를 보면 오봉리에 3개 성씨, 조일리에 4개 성씨, 서광리에 10개 성씨, 천진리에 5개 성씨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제 본관 및 성씨가 확인된 가구 535가구를 대상으로 우도의 성씨 구성을 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씨는 113가구인 제주 고씨로서 이 성씨는 일백가구가 넘는 유일한 성씨이며 본관이 확인된 가구의 약 21%가 된다. 고씨 이외에 그 수로 보아서 많이 살고 있는 성씨들 9개 만을 나열하여 보면 김해 김씨 86가구(16%), 파평 윤씨 63가구(12%), 제주 양씨 35가구(7%), 곡산 강씨 25가구(5%), 광산 김씨 23가구(4%), 전주 강씨 19가구(3.6%), 단양 우씨 17가구(3%), 청주 한씨 15가구(2.8%), 곡부 공씨 14가구(2.6%) 순이다. 굳이 평명해 보자면 이들 성씨를 우도의 10대 성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순위 오씨, 전주 이씨, 진주 정씨 등 3개 성씨는 각 11가구로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성씨들은 2%(10가구) 미만의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소 성씨들이다. 이들 군소 성씨들을 나열하여 보면(가나다 순), 안동 권씨 2가구, 경주 김씨 9, 남평 문씨 3, 밀양 박씨 7, 여산 송씨 2, 평산 신씨 4, 함양 여씨 7, 성주 이씨 2, 완산 이씨 2, 여천 임씨 4, 천안 전씨 8, 동래 정씨 2, 경주 정씨 3, 연안 차씨 2, 평강 채씨 5, 전주 최씨 8, 남양 홍씨 7, 창원 황씨 4가구 등이며, 단일 가구인 성씨들도 있는데 현풍곽씨, 청주

김씨, 청풍 김씨, 장흥 마씨, 수원 백씨, 순흥 안씨, 전의 이씨, 경주 이씨, 나주 임씨, 풍천 임씨, 초계 최씨, 연주 현씨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본관과 성씨 모두 확인된 성씨만을 가지고 보면 우도는 모두 44개의 성씨가 있으며, 본관 미상의 성씨(그 성씨가 본관 확인된 앞의 성씨들과 같은 명칭의 성씨를 제외한 성씨)를 포함하면 49개의 성씨가 있다. 44개 성씨에 추가되는 5개 성씨는 남씨, 부씨, 육씨, 조씨, 주씨이다.

성씨별로 그 성씨들이 각 리(행정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고씨 : 오봉리 44가구(39%), 천진리 27가구, 조일리 25가구, 서광리 17가구.

김해 김씨 : 조일리 33가구(38%), 서광리 23가구, 오봉리와 천진리 각 16가구.

과평 윤씨 : 대부분(36가구, 57%)이 오봉리에 거주하고 있고 천진리 12가구, 조일리 9가구, 서광리 6가구.

제주 양씨 : 대부분(22가구, 63%)이 오봉리에 거주하고 있고 천진리에 7가구, 서광리에 5가구, 조일리에 1가구.

곡산 강씨 : 오봉리 9가구(36%), 천진리 8가구, 조일리와 서광리 각 4가구.

광산 김씨 : 천진리와 조일리에 각 9가구(39%) 씩, 약 80%는 이 두개 리에 거주하고 있고, 오봉리에 4가구, 서광리에 1가구.

진주 강씨 : 오봉리에 대부분(14가구, 74%)이 거주하고, 천진리에 5가구, 조일리와 서광리에는 없음.

단양 우씨 : 오봉리에 대부분(12가구, 71%)이 거주하고 서광리에 3가구, 조일리와 천진리에 각 1가구.

청주 한씨 : 조일리에 8가구(53%), 오봉리 5가구, 천진리와 서광리에 각 1가구.

곡부 공씨 : 천진리의 1가구 외에는 모두(13가구, 93%)가 조일리에 거주한다.

이상의 10대 성씨 외에 우도의 성씨 구성 비중에서 2% 정도(11가구)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3개 성씨(군위 오, 전주 이, 진주 정)의 리별 분포를 보면, 군위 오씨는 서광리에 대부분(8가구)이 거주하고, 조일리에 2가구, 오봉리에 1가구가 거주한다. 전주 이씨는 천진리에 5가구, 조일리에 4가구, 오봉리와 서광리에 각 1

가구씩 분포되어 있다. 전주 정씨는 11가구 모두 서광리에 거주한다.

10가구(2%) 미만의 군소 성씨들의 리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 권씨 2가구는 오봉리에, 경주 김씨 9가구는 오봉리에 4, 조일리와 서광리에 각 2, 천진리에 1가구, 남평 문씨는 조일리에 3가구, 밀양 박씨는 오봉, 조일, 서광 3개리에 각 2가구 씩, 천진리에 1가구, 여산 송씨 2가구는 천진리에, 평산 신씨 4가구는 천진리 3가구, 서광리 1가구, 함양 여씨 7가구는 조일리에 3, 오봉리와 천진리에 각 2가구씩, 성주 이씨 2가구는 오봉리에, 완산 이씨 2가구는 천진리에, 여천 임씨 4가구는 서광리에 3가구, 천진리에 1가구, 천안 전씨 8가구는 천진리에, 동래 정씨 2가구는 오봉리에, 경주 정씨 3가구는 조일리에, 연안 차씨 2가구는 오봉리에, 평강 채씨 5가구는 오봉리에 3가구, 천진리에 2가구, 전주 최씨 8가구는 조일리에 6가구, 서광리에 2가구, 남양 홍씨 7가구는 서광리에 5가구, 천진리에 2가구, 창원 황씨 4가구는 조일리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한 가구 뿐인 단일 가구 성씨를 보면 현풍 곽씨는 오봉리, 청주 김씨와 청풍 김씨는 조일리, 장흥 따씨는 천진리, 수원 백씨는 조일리, 순흥 안씨는 오봉리, 전의 이씨는 오봉리, 경주 이씨는 조일리, 나주 임씨는 오봉리, 풍천 임씨는 서광리, 초계 최씨는 조일리, 여주 현씨는 서광리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4개 행정리 별로 성씨 분포를 보면 :

오봉리 : 제주 고씨 44, 파평 윤씨 36, 제주 양씨 22, 김해 김씨 16, 진주 강씨 14 등 5대 성씨 포함 23개 성씨.

조일리 : 제주 고씨 25, 김해 김씨 33, 곡부 공씨 13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23개 성씨.

서광리 : 제주 고씨 17, 김해 김씨 23, 진주 정씨 11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19개 성씨.

천진리 : 제주 고씨 27, 김해 김씨 16, 파평 윤씨 12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20개 성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봉리와 조일리는 다른 두 개 리(천진과 서광)에 비해 비교적 성씨 구성이 다양한데, 가구 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보면 조일리의 경우가 그 성씨 구성이 가장 다양하고 오봉리의 경우가 비교적 단순한 성씨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 고씨와 김해 김씨는 4개리 모두에서 대성씨(11가구 이상)가 되고 있으며 제주 양씨는 오봉리에서, 파평 윤씨는 오봉리와 천진리에서, 곡부 공씨는 조일리에서, 진주 강씨는 오봉리에서, 진주 정씨는 서광리에서 각각 대성씨가 되고 있다. 이들 대성씨 중 영향력 있는 성씨는 조일리에서 김해 김씨와 제주 고씨, 오봉리에서 제주 고씨라고 하며(래당리의 유력 인사의 설명) 다른 두 개의 리에는 영향력 있는 성씨가 별로 없다고 한다.

이 글은 1992년 2월 10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전산출력물)에 의한 것이지만, 성씨 구성에 관련된 우도면사무소 비치 자료로는 1992년 7월 현재 [호적 색출장]과 [주민등록표 색인부]가 있다. 이들 자료에는 본관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본관을 고려에 넣지 않고 보았을 때 [호적 색출장]에 따르면 36개 성씨가,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따르면 39개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호적에는 있고 주민등록에 없는 성씨는 馬(4가구), 宋井과 趙(각 1가구) 등 3개 성씨이고 호적에 없고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있는 성씨는 羅, 南, 陸, 曷, 朱, 陳(각 1가구) 등 6개 성씨이다.

<표> 마을별 성씨 분포

1992. 2. 10 현재, 주민등록표(전산 출력물)에 의함.

<표>에서 숫자는 가구 수임. ()속의 숫자는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

	본 관	오 봉 리	조 일 리	서 광 리	천 진 리	계
강(姜) :	진 주	14(6)			5(1)	19(7)
강(康) :	곡 산	9(3)	4	4(1)	8	25(4)
고(高) :	재 주	44(17)	25(11)	17(6)	27(14)	113(48)
공(孔) :	곡 부		13(5)		1	14(5)
곽(郭) :	현 풍	1				1
권(權) :	안 동	2(1)				2(1)
김(金) :	청 주		1			1
	청 풍		1			1
	김 해	15(5)	33(15)	23(6)	16(6)	86(32)
	경 주	4(3)	2	2	1	9(3)
	광 산	4(2)	9(1)	1	9(3)	23(6)

	본 관	오 봉 리	조 일 리	서 광 리	천 진 리	계
마(馬) :	장				1(1)	1(1)
문(文) :	남		3(3)			3(3)
박(朴) :	밀	2(1)	2	2(1)	1(1)	7(3)
백(白) :	수		i			1
송(宋) :	礪山				2(1)	2(1)
신(申) :	평			1	3(2)	4(2)
안(安) :	순	1				1
양(梁) :	제	22(11)	1(1)	5(3)	7(3)	35(18)
여(呂) :	함	2(1)	3(1)		2	7(2)
오(吳) :	군	1	2(1)	8(5)		11(6)
우(禹) :	단	12(8)	1(1)	3	1(1)	17(6)
윤(尹) :	과	36(10)	9(3)	6(2)	12(7)	63(22)
이(李) :	전	1(1)	4(1)	1	5(1)	11(3)
	전	1(1)				1(1)
	성	2				2
	경		1(1)			1(1)
	완				2(1)	2(1)
임(林) :	나	1				1
임() :	礪川			3(1)	1(1)	4(2)
임(任) :	풍			1(1)		1(1)
전(全) :	천				8(5)	8(5)
정(鄭) :	동	2				2
정(鄭) :	진			11(3)		11(3)
정(鄭) :	경		3(1)			3(1)
차(車) :	연	2(2)				2(2)
채(蔡) :	평	3(2)			2	5(2)
최(崔) :	후		1			1
	진		6(3)	2		8(3)
한(韓) :	청	5(1)	8	1	1	15(1)
현(玄) :	연			1		1
홍(洪) :	남			5(2)	2(1)	7(3)
황(黃) :	창		4(1)			4(1)
(미상)*		8(8)	9(9)	3(3)	7(7)	27(27)
중 합	44개 성씨				562가구	

* '미상'은 여가구주의 경우로서 그 남편의 본관과 성씨가 모두 미상임.

<표>에서 562 가구 중 남편 성씨 미상의 여가구주인 사례 27 가구를 빼면 본관과 성씨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가구는 535 가구임.

〈표〉 본관 미상의 성씨 현황

본적이 우도가 아니어서 그 본관을 확인하지 못한 성씨.

〈표〉에서 '남' '여'는 가구주의 성별이며, 숫자는 가구수임.

성 씨	오 봉 리		조 일 리		서 광 리		전 진 리		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	1	4	1	1	2	1		1	4	7	11
고			2	1	1			2	3	3	6
공		1		1						2	2
김	4	2		1	5	3	1	4	10	10	20
남							1		1		1
박							1		1		1
부		1								1	1
안						1				1	1
양		1		1		1				3	3
오					1				1		1
육							1		1		1
윤		1			1	1			1	2	3
이			1		2				3		3
정			1		1	1			2	1	3
조								1		1	1
주	1								1		1
차					1				1		1
채							1		1		1
최						2				2	2
한					1				1		1
홍					2				2		2
계					남 33가구		여 33가구,		총 66가구		

제 2 장 家 族

제 1 절 家族과 家口

家族은 우리에게 매우 '친밀한' 환경이며 또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므로, 가족이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당연하여 대답하기가 어색하거나 까다롭다. 더군다나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崔在錫(1966 : 19)은 가족을 “家計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李光奎(1975 : 27)는 “결혼과 血緣이란 관계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同居同財의 공동체이고 生殖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로 가족을 보았다. 이에 비해 인구조사를 비롯한 사회조사의 단위나 마을행정의 단위로 사용되는 家口는 구성원의 성격(친족집단)이나 관계(결혼과 혈연)를 고려하지 않고, 거주하는 공간과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한 집단을 말한다(李光奎 1975 : 33~34).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부부리는 혼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가족이라는 단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가족생활의 현실을 볼 때 정하기가 쉽지 않다. 濟州島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식부부가 한 울타리 내 안거리와 밖거리의 다른 채에 거주하면서 취사를 달리하는 등 부모와 자식부부가 각각의 독립된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한 울타리 내의 집단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 두 개의 별개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崔在錫(1979 : 21)은 “제주도의 가족에

있어서는 〈家計의 共同〉, 즉 경제생활의 공동 가운데 취사의 공동이 단위로서의 가족생활 확인의 가장 유효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여 두 개의 별개 가족(부모 가족과 분가한 자식 가족)으로 보았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제주도에서 살림을 따로 낼 때, 즉 분가하는 것을 ‘술가른다’고 말하는 것을 들고 있다(崔在錫 1979 : 30. 金惠淑 1984 : 129).

그러나 李光奎(1975 : 32)는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을 결혼과 혈연으로 결합된 구성원이 동거집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하면서, 공동취사집단을 世帶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는 가족과 세대가 일치하지만, 제주도에서는 1가족 2세대 형태의 가족생활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취사단위를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가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세대(특히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르다고 부언하고 있다(李光奎 1975 : 34).

그렇지만 李光奎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는 崔在錫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라는 가족의 요건 중 경제생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은 경제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실제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가족이라는 것이다(李光奎 1984 : 62~63).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생활이라는 관점 이외에 玄容駿(1973 : 72)은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이 대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회생활과 家族意識의 측면을 언급하였다. 즉 두 집단(부모 世代와 자식 세대)이 “사실상” 두 개의 가족이면서 마을행정의 단위로는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되며(사회적 혹은 행정적 公認의 측면), 대외적으로 하나의 가족임을 나타내고(가족이라는 단위의 범주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기능하는 측면), 또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가족구성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지적하였다.

세 학자들의 제주도 가족에 대한 논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현실의 가족생활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확인”(최재석), “실제가족”(이광규), “사실상”(현용준) 등의 표현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이광규는 처음에는 동거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가

후에는 경제생활의 단위라는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하여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재석과 이광규의 논의는 외부자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가족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여, 내부자인 구성원의 관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용준은 “사실상”의 표현을 쓸 때는 관찰자의 입장 혹은 개념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주도의 가족을 설명하고, 덧붙여서 가족의식이라는 구성원의 관점을 고려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부역을 따로 쓰는 가족과 부역을 같이 쓰는 가족을 구별하였다.

제 2 절 자료의 성격

국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을 분석한 崔在錫(1966 : 19)은 가족을 “家計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국세조사가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다는 자료의 성격상 분석할 때는 “家口에서 非家族員을 제외한 잔여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도의 가족을 기술하는 이 글에서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가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주된 자료로 사용한 것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1991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도의 총 666가구(북제주군 1990년 통계연보) 가운데 유작위로 추출된 148가구에 대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부인과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개별 방문 면접으로 수집한 자료이다(정대연 외 1991). 그러나 2가구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부인 둘 다를 면접한 결과로 나타나 실제 가족구조를 조사한 가구는 146가구이다.

이 조사로 파악된 가족은 응답자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거여부만을 묻은 결과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우도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동거여부에 대해서도 한 울타리 안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두 世代가 사는 경우 응답자가 이런 현실을 동거로 했는지 비동거로 했는지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의 판단에 의존한 자료라 하겠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네 명에 국한해서 혼인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비동거 가족원 중 혼인에 의한 비동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도의 가족을 “우도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구성원

중 학업이나 군복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학업이나 군복무로 우도에서 살지 않은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킨 것은 우도에는 중학교까지만 있어 고등학교부터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양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있기 때문이며, 군복무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출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동거가족원으로부터 구성된 가구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주민등록부상의 世帯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1992년 2월 10일 현재의 주민등록부를 대조하였는데, 1991년도에 개별 방문면접 조사에서 파악한 146가구 가운데 125가구만을 주민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 가족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1973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0)가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는 당시 11개 자연부락 중 上牛目洞과 下牛目洞 두 개의 자연부락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먼저 里사부소에 비치된 주민등록표를 옮겨적어 公簿상의 가구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 家戶마다 돌아다니며 퇴거 출타 여부, 주거 및 생산 소비생활의 공동여부 등 실제의 가족을 확인”(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58)하여 주민등록상의 108세대 중 89세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91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도거주의 가구를 조사한 것인데, 1991년도 조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1973년도의 조사는 먼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확인한 후 생산 소비생활의 공동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의 단위와 관찰자의 관점에서 가족을 조사한 것과 가족의 크기나 가족의 유형을 분석할 때 학업과 군복무 등 잠정적인 별거 상태의 가족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제 3 절 家族의 크기

우도 가족의 크기를 평균 가족원의 수로 살펴보면, 1973년도 조사에서는 세대당 6인으로 나타난다. 1972년도 濟州道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4.63人이고

『1972년도 제주도통계연보』를 보면, 우도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한 가구의 크기가 매우 큰 편이다. 1989년 상주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제주도 전체의 가구당 가구원수(3.96人)보다 우도 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4.84人)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도 조사의 자료를 보면, 비동거자 중 학생과 군인을 포함한 가족의 크기는 가족당 3.64人이며, 동거가족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크기는 가구당 3.12人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의 크기가 세대당 평균 4.24人(1992년 2월 현재)이고 보면, 1991년도 조사의 결과가 가족당(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작은 이유는 우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가구)의 크기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을 바탕으로 조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조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도 거주 가족(가구)의 크기와 제주도 전체 가구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도의 가족에서는 취업 등의 이유로 출타한 가족원이 많기 때문에 거주가족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중에는 우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우도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의 크기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

평균 가족원수보다 더욱 가족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자료는 인원수에 따른 가족의 분포라 하겠다. 제주도 가족의 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1人 家口의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金惠淑 1985, 李昌基 1987 : 190), 우도 가족의 경우에도 제주도 전체 가족의 양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1991년도 조사에서는 1人 家族이 13가족으로 조사 대상 가족 146가족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우도에 상주하는 인원수로만 살펴 본 1人 家口는 16가구로 전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1人 卍帶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 13.6%(17세대)나 된다.

(표 1) 인원수별 가족/가구/세대 분포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가 구 (1991년)	세 대 (1992년)
1인	1(1.1%)	13(8.9%)	16(11.0%)	17(13.6%)
2인	6(6.7%)	24(16.4%)	42(28.8%)	14(11.2%)
3인	6(6.7%)	38(26.0%)	37(25.3%)	19(15.2%)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가 구 (1991년)	세 대 (1992년)
4인	12(13.5%)	30(20.5%)	22(15.1%)	16(12.8%)
5인	11(12.4%)	19(13.0%)	20(13.7%)	20(16.0%)
6인	16(18.0%)	15(10.3%)	6(4.1%)	22(17.6%)
7인	14(15.7%)	5(3.4%)	3(2.1%)	8(6.4%)
8인	9(10.2%)	2(1.4%)	—	7(5.6%)
9인	8(9.0%)	—	—	—
10인	5(5.6%)	—	—	2(1.6%)
11인	—	—	—	—
12인	1(1.1%)	—	—	—
계	89(100.0%)	146(100.0%)	146(100.0%)	125(100.0%)
평균가구원수	6.00	3.64	3.12	4.24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보면, 1인 가족(가구)의 비율이 9.5%(崔在錫 1979 : 51), 34.1%(金惠淑 1985 : 332) 등으로 조사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1973년도의 우도 조사에서는 1인 家族의 비율(1.1%)이 매우 낮은 이유가 두 개의 자연부락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우도 전체를 조사한 1991년도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1991년도 조사에서도 1973년에 조사한 上牛目洞과 下牛目洞에서는 1인 가족이 발견되지 않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1인 가족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1인 가족의 비율은 지역의 생계양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도는 자연부락별로 생계양식에 차이가 나며 자연부락(동)별로 향약과 시행규정을 따로 갖고 있어 자연부락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정대연 외 1991 : 352-353)는 점에서 1인 가족이나 1인 가구의 생활방식이 자연부락별로 달리 나타나 1인 가족(가구)의 비율도 자연부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한 표본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1991년도 조사가 얼마나 우도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1인 가족의 분포를 보면, 조일리 6가족(조사대상 47가족 중 12.8%), 오봉리 4가족(조사 대상 38가족 중 10.5%), 천진리 3가족(조사 대상 38가족 중 7.9%)으로 1973년

조사지역이었던 서광리는 조사대상 23가족 중 1인 가족이 한 가족도 없었다. 현재의 서광리는 上牛目洞, 下牛目洞, 中央洞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3년 당시의 조사지역은 上牛目洞과 下牛目洞이었다. 1인 가구를 보더라도 조일리 7가구, 오봉리 6가구, 천진리 3가구로 분포되어 있었다.

1973년도 우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1991년도 조사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를 시간적인 차이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1960년 9.0%, 1966년 9.6%, 1975년 12.2%, 1980년 11.2%, 1985년 12.7%로 1975년 이후 커다란 변화없이 12% 전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李昌基 1992a : 174-176)에 비추어, 두 조사에서의 1인 가족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조사 마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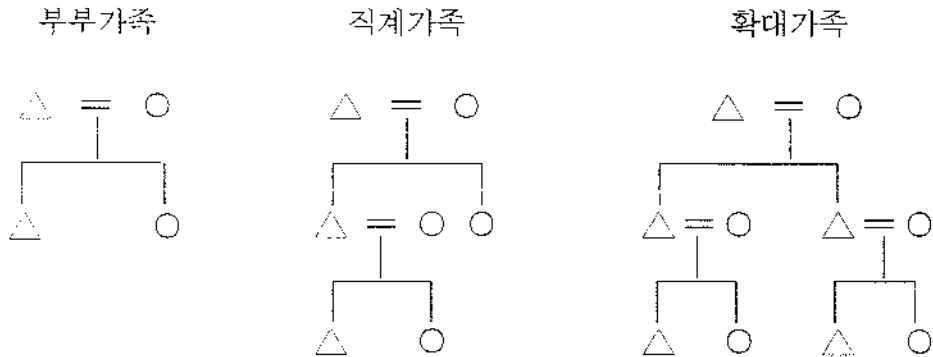
1인 가족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수의 2.3%(1960년)~6.9%(1985년) 정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9.0%(1960년)~12.7%(1985년)의 분포를 보이면서 197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전국적으로 가구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산업화나 도시화와 같은 변화로 설명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장남까지도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하고 자녀를 모두 분가시킨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가족제도 때문에 전국에 비해 1인 가구가 많고 가구의 규모도 작지만, 시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인구학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李昌基 1992a). 다시 말해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뿐만 아니라 우도의 여건이 취업으로 인한 移出者와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자의 수가 많다는 것(〈표 1〉에서 가족과 가구의 크기 차이)도 우도 가족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

제 4 절 家族構造

가족구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類型이다. 가족의 유형으로는 夫婦家族, 直系家族, 擴大家族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부부가족은 부부

와 그들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며, 결혼한 자식 1인이 동거하는 가족을 직계가족, 결혼한 자식 둘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 한다.

〈그림 1〉 가족 유형



보기 : △ 남자
○ 여자
= 결혼관계
| 出系관계(부모 자식 관계)

한국가족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직계가족이다(崔在錫 1966 : 91, 李光奎 1975 : 59).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계가족보다는 부부가족이 더 많은데, 이는 직계가족의 원리상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결혼 후 분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가족은 직계가족을 이루기 前 단계의 부부가족이기 때문에 서구의 核家族와는 다르다. 따라서 가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家族周期의 순환에 따라 가족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여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부부가족으로 시작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부부와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2세대 부부가족이 된다. 그후 長男이 결혼을 하여 같이 살게 되면 부모와 장남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직계가족이 되고, 장남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면 3세대 직계가족이 된다. 3세대 직계가족에서 最上世代인 부모가 모두 죽으면 다시 2세대 부부가족이 된다. 그러

나 최상세대가 모두 죽기 전에 長孫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4세대 직계 가족이 되기도 한다. 또한 차남 이하의 아들의 경우,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여 처음 단계인 1세대 부부가족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직계가족으로 변화를 한다.

우도가족의 구조를 가족유형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1973년도 조사에서는 부부가족이 조사가구의 57.3%이었으나, 1991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80.8%로 부부가족의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직계가족의 비중은 39.3%(1973년)에서 17.8%(1991년)로 낮아졌다.

<표 2> 가족유형별 가족/세대 분포

구 분	거주 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세 대 (1992년)
부 부 가 족	51(57.3%)	118(80.8%)	103(82.4%)
직 계 가 족	35(39.3%)	26(17.8%)	21(16.8%)
가 타	3(3.4%)	2(1.4%)*	1(0.8%)**
계	89(100.0%)	146(100.0%)	125(100.0%)

* 숙모+조카부부+조카자녀
친정어머니+편모+자녀

** 시숙+편모+자녀

1991년도 가족구조 조사에서 부부가족의 비중이 1973년도에 비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世代別 가족의 분포와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가족들이 가족주기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世代別 가족수는 <표 3>과 같다.

<표 3> 世代別 家族/世帶 분포

구 분	거주 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世 帶 (1992년)
1 世 代	4(4.5%)	25(17.1%)	26(20.8%)
2 世 代	53(59.5%)	99(67.8%)	77(61.6%)
3 世 代 이 상	32(36.0%)	22(15.1%)	22(17.6%)
계	89(100.0%)	146(100.0%)	125(100.0%)

1대 가족은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족인데, 1973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4.5%인 4가족이 1대 가족이었다. 그러나 1991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17.1%인 25가족이 1대 가족으로 그 비중이 커졌다. 1대 가족의 경우 1인 가족이 13가족,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12가족인데 (<표 4> 참조), 1인 가족은 모두 여자로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6명, 80대가 2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의 배우자는 부산에서 둘째 부인과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족이 형성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과 자식이 독립해 나간 경우(결혼 혹은 취업)가 대부분이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2가족의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2명, 60대가 6명, 70대가 4명으로 나타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도 가족주기의 첫단계인 결혼후 출산이 없는 부부가족이 아니라 2대 부부가족에서 미혼자녀의 출타나 결혼한 아들들이 모두 분가한 후의 부부가족이다. 따라서 1대 가족은 가족의 축소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농촌 거주가족의 가족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유철인 1981 : 114).

2대 가족은 1973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가구의 59.5%인 53가족이었고, 1991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67.8%인 99가족이었다. 3대 이상의 가족은 대부분 직계가족의 형태를 보이는데, 1973년 36.0%(4대 가족 2.3% 포함)에서 1991년 15.1%(4대 가족 없음)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육과 취업으로 우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991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족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전체 조사대상의 48.6%인 71가족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편부모(대부분이 편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었다(15.1%, 22가족). 직계가족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편친(전부 편모임)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인데, 전체 146가족의 8.9%인 13가족이었다.

〈표 4〉 결합형태별 가족/세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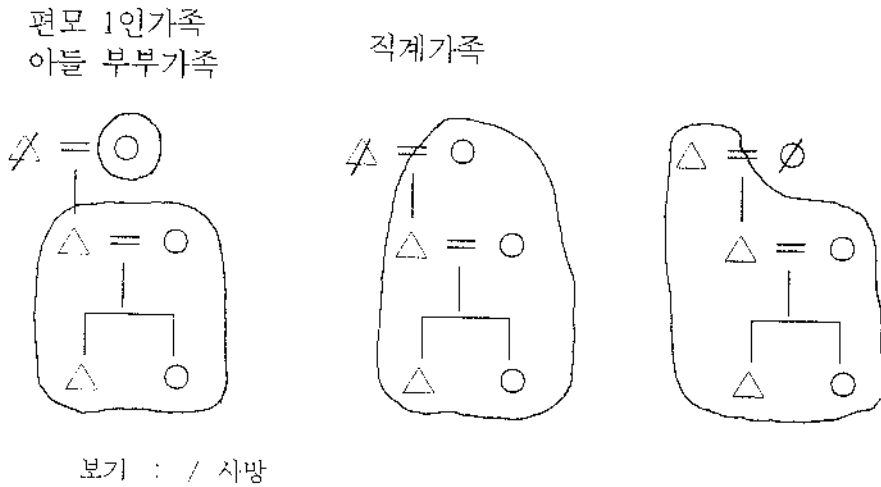
구 분	가 족 (1991년)	世 帶 (1992년)
1세대		
1인 단독	13(8.9%)	17(13.6%)
부부	12(8.2%)	8(6.4%)
형제자매	-	1(0.8%)
2세대		
부부+자녀	71(48.6%)	58(46.4%)
부부+자녀+형제자매	-	2(1.6%)
편부모+자녀	22(15.1%)	17(13.6%)
양친+부부	1(0.7%)	-
양친+부부+형제자매	1(0.7%)	-
편친+부부+형제자매	4(2.7%)	-
3세대		
양친+부부+자녀	2(1.4%)	-
양친+부부+자녀+형제자매	-	3(2.4%)
편친+부부+자녀	13(8.9%)	9(7.2%)
편친+부부+자녀+형제자매	-	4(3.2%)
양친+편부모+자녀	1(0.7%)	1(0.8%)
양친+편부모+자녀+형제자매	-	1(0.8%)
편친+편부모+자녀	2(1.4%)	1(0.8%)
기타	4(2.7%)*	2(1.6%)**
4세대		
조모+편친+부부+자녀+형제자매	-	1(0.8%)
계	146(100.0%)	125(100.0%)

* 조모+손자
조부모+손자
숙모+조카부부+조카자녀
친정어머니+편모+자녀

** 조부모+손자
시숙+편모+자녀

편모와 아들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림 2>에서 처럼 濟州本島에서는 편모가 노동력이 있는 한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편모 1인 단독가구와 아들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으로 나누어지고, 노동력이 없으면 동일가족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3). 편부의 경우에는 남자 혼자서 취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역시 아들부부와 동일가족을 이룬다.

〈그림 2〉 편부모와 아들 가족의 가족구성



우도의 가족 중에서 편모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13가족)의 편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가 2명, 70대가 7명, 80대가 4명이다. 여자 1인 가족의 여자 13명의 연령이 50대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6명, 80대가 2명인 것과 비교하면 직계가족을 이루는 여자의 나이가 약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60대 1명만이 물질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은 모두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1인 가족의 경우, 50대 여자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여자 4명 중 2명은 각각 농사를 짓거나 보살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70대 여자의 경우도 6명 중 4명이 일을 한다고(물질 3, 농사 1) 응답했으며, 80대 여자 2명 모두는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편모가 노동력이 있는 한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편모 1인 단독가구를 이룬다는 제주본도 가족에 대한 설명이 우도 거주 가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91년 조사에서 1인 가족의 경우 아들 가족이 한 울타리에 사는지, 우도에 살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 편모를 모시고 있다는 가족의 경우도 母와 아들부부가 따로 살다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합쳐서 사는지, 아니면 한 울타리에서 독립된 취사 단위를 이루면서 조사자에게 하나의 가족으로 응답했는지, 또는 부모를 모두 모시고 살다가 父가 죽은 후의 가족을 나타내는지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도 가족의 경우도 母의 노동력이 과연 두 개의 가족(1인 단독가족과 부부가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의 직계가족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973년 조사에서는 母의 노동력 때문에 오히려 牛島에서는 직계가족을 이룬다고 설명하여 母의 노동력 유무가 濟州本島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 牛島에서는 한 울타리에 살면서 母와 아들 가족이 따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가 한 가족도 발견되지 않았고, 1인 가족도 단지 한 사례만이 있어, 직계가족이 제주본도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도의 생업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우도는 어업, 특히 해녀의 裸潛漁業이 성하여 5·60세의 老女나 14·5세의 少女까지라도 자기의 생활비는 넉넉히 벌어들인다.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아 가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老母나 미혼의 누이가 아들의 가족과 같은 가족을 이루고 있어도 경제적인 갈등 같은 것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직계가족이 많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

이러한 설명 방식은 같은 조사에서 養女에 대한 설명방식과 일치한다. 우도전체에 걸쳐 1973년도 현재 양녀가 28명이었는데(당시 조사하기 전에는 양녀가 5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22명은 자녀로 입적되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양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의 구성이 모두 아들 딸이 갖추어 있는 가족인 것을 보더라도 양녀는 노동력의 획득에 그 동기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72). 따라서 1973년도 가족 조사에서는

가족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었다(〈표 1〉 참조).

1991년 조사에서는 양녀에 대해 친진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때 당시에 사실상 나이 많으신 우도사람들이 하나의 욕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해녀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 해녀작업을 안 하는 시기에는 돈벌러 욕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면 거기에는 순 남자 힘 가지고만 먹고 살아가니까 힘든 지방 아납니까? 전라도 경상도 촌 지방은, (중략) 참 못 살 때인데, 그러니까 해녀작업이 끝나서 돌아올 때가 되면 우리 딸 데려가서 좀 키워달라고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데려오느냐, 여기 와서 키워서 바다 다니게 되면, 돈을 좀 모으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해녀가 없어서 난리일 때니까. (중략) 요즈음은 나가서 데려오는 사람이 없지.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매호당 1명 정도는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대연 외 1991 : 354).

발농사와 물질에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혼여자 1인이 생활의 단위가 되어 (佐藤信行 1973 : 110, 李光奎 1984 : 65에서 재인용), “빈약한 자원과 매우 열악한 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최대한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가족구조가 단순하다는 주장(李昌基 1992b : 29)과 여자는 노동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가족의 크기가 크다는 상반된 주장(玄容駿 1973 : 79,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이 있다. 다시 말해 母 1인 가족과 아들 가족으로 분리되는 것이나 母와 아들 가족이 직계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나 모두 여자의 노동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5 절 가족의식과 行政 世帶

제주도의 가족은 한국가족과는 달리 장남도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한다. 이 때의 분가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 울타리 안에서 안거리와 밖거리로 생활공간을 분할하여 부모가족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취사단위 즉 경제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를 玄容駿(1973)은 “直系家族的 意識”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직계가족적 의식은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예를 들어, 천진리에 사는 한 長男은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우도 실정이란 것이 못난 놈만 삽니다. 비련하고 못난 놈만 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장자 아님니까? 예, 장자는 못난 놈이예요. 여자 못된 것이 큰 아들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못난 놈들만 부모 때문에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향 들어온 지가 10년입니다”(정대연 외 1991 : 352-353)라고 말하였다. 한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모를 장자가 모셔야 한다는 직계가족의 원리 혹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객지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우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현실적 가족 유형은 부모와 같이 사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관념은 직계가족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 가족유형과 가족의식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1991년도 가족 조사와 1992년도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4>에 나타난 결합형태별로는 결합형태가 다른 가족이 39가족 22종류로 나타났다. 결합형태가 다른 가족을 가족유형에 따라 두 자료가 다른 것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과 行政世帯의 가족유형

구 분		가 족 (1991년)			계
		부부가족	직계가족	기 타	
行政世帯 (1992년)	부부가족	13	11	1	25
	직계가족	9	4	—	13
	기 타	1	—	—	1
계		23	15	1	39

응답자가 가족구성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 부부가족이었는데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은 직계가족인 경우가 9가족이었고, 응답자가 직계가족이라고 생각한 11가족이 주민등록상 부부가족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실제 동거하는 가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족연구에서 보통 의미없는 자료로 취급되지만, 응답자가 말하는 가족구성과 행정상의 세대구성이 다른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안거리와 뉘거리로 주거형태가 나뉘는 제주도 가족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응답자가 부부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상에는 편모가 같은 世帶를 이루는 경우(9가족)에는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뉘어 살면서 응답자가 스스로 다른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응답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부부가족으로만 기록되는 경우(편모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를 포함한 11가족)는 실제로 분가를 했으면서도 같은 가족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金惠淑

1984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 119-144.

1985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20 : 329-344.

庾喆仁

1981 農村家族構造의 家族類型論的 分析. 『農村經濟』 4(2) : 103-11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李光奎

1975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 一志社

1984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 社會學的 側面, 『耽羅文化』 3 : 61-7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李昌基

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 179-202.

1992a 濟州島 家口構成의 變化 : 1960-85. 『人文研究』 14(1) : 171-18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b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 : 挑戰 · 適應 · 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研究』 9 : 17-35, 濟州島研究會.

鄭大然, 庾喆仁, 金永熙

1991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濟州有人島學術調查』,
pp. 271-384. 제주시: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濟州道.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濟州島 部落誌(Ⅲ)』, pp.15-1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崔在錫

1966 『韓國家族研究』. 서울:民衆書館.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一志社.

玄容駿

1973 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報告書』, pp. 70-80.
濟州道.

佐藤信行

1973 濟州島の家族.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中根千枝편, pp. 109-146.
東京:東京大學出版會.